

34

사회적경제 양적 · 질적으로 빠르게 성장

민간의 자율적 노력과 정부의 강력한 뒷받침으로
사회적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우리 생활 속에 본격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수 55% 증가

'16년 2만459개 → '20년 3만1,724개

사회적경제기업 취업자 수 26% 증가, 취약계층 취업자 수 43% 증가

취업자 수 : '16년 24.9만명 → '20년 31.4만명

취약계층 취업자 수 : '16년 4.2만명 → '20년 6만명

평균 매출액 24% 증가

'16년 15.8억원 → '20년 19.6억원(사회적기업 기준)

진출분야 다양화

취약계층 보호, 지역공동체 회복, 친환경 생산 · 소비 등 우리 생활 속에 본격 확산

사회적경제가 미래의 경제 · 사회 구조변화 속에서
포용성장 · 사회혁신을 선도해 나가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의 중요성

사회적경제는 시장 자본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필수과제입니다.

- 승자독식, 격차확대 등 시장자본주의의 한계가 나타나면서, 연대 · 협력, 자율 · 민주를 토대로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가 이를 보완 · 대체하기 위한 대안으로 부상하였습니다.
- 최근 코로나 19를 계기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 경제 · 사회구조의 대전환에서 변화에 뒤처지는 사람과 취약한 공동체가 나타나면서, 그 중요성과 역할은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 사회문제 해결, 사회혁신 등 사회적경제의 긍정적인 역할을 인정하고, ‘변방에서 주류로’(from the Margins to the Mainstream) 편입시키려는 국제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와 시장자본주의의 비교



사회적경제 민 · 관 합동 거버넌스 구축

역대 최초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지정하고, 28개의 정책과제를 실행해왔습니다.

-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기 위해 민간 중심의 거버넌스인 ‘사회적경제전문위원회’를 구성(‘17~)하고, 17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관계부처 TF와 중앙-지방 협의회를 통해 정책 간 연계 · 조정도 강화했습니다.
- 사회적경제연대회의(민간), 지방정부협의회(지자체) 등의 정책제언을 받아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17.10)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28개의 정책과제를 마련 · 이행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사회적경제 주요정책



생태계 조성 노력

인재 · 금융 · 판로 등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였습니다.

- 사회적경제 교육 및 인재발굴 · 육성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1만명의 전문인재를 양성('17~'20)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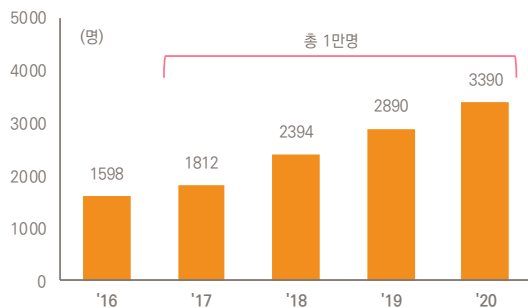
* 표준교육안 마련, 사회적경제 선도대학 지정(현 17개 대학 학위과정 운영) 등

-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1.8조원을 공급('18~'21.10)하고, 사회적경제기업 금융평가모형 개발 등 인프라를 조성하여 금융접근성을 높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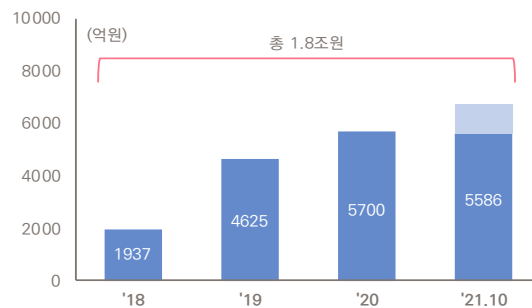
- 공공기관 우선구매를 약 1.9조원까지 확대('20)하고, 소셜벤처 양성, 유통지원센터 신설 등을 통해 민간 유통채널 개척을 지원하였습니다.

- 사회적경제 성장지원센터(15개소, ~'21), 혁신타운(6개소, ~'23)을 건립하여 지역별 인큐베이팅 공간을 제공하고, 총 233개('17~'20)의 R&D · 사업화 과제를 지원하였습니다.

인재양성



정책자금 공급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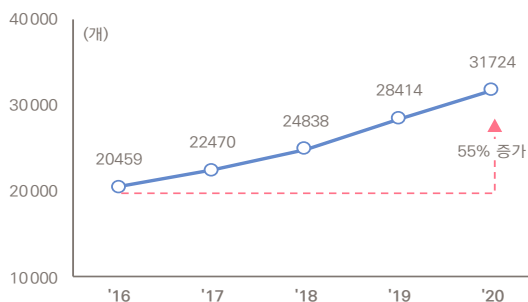
성과 ❶ 사회적경제 기업 수 증가

사회적경제 기업 수가 55% 증가하고, 연간 창업기업 수가 증가세로 전환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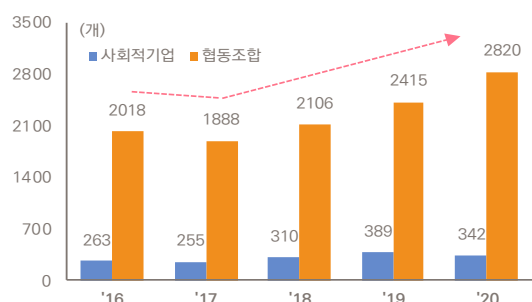
- 사회적경제 기업 수는 '16년 20,459개에서 '20년 31,724개로 55% 증가하였습니다.

- '13~'16년간 감소세이던 연간 창업기업 수가 사회적경제 전문인재 양성, 지역별 인큐베이팅 공간 조성 등에 힘입어 '17년을 기점으로 증가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수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창업기업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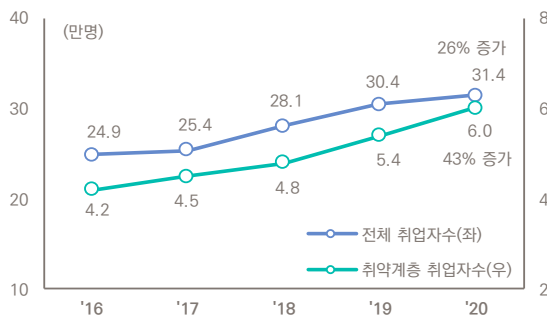


성과 ② 사회적경제기업 취업자수 · 매출액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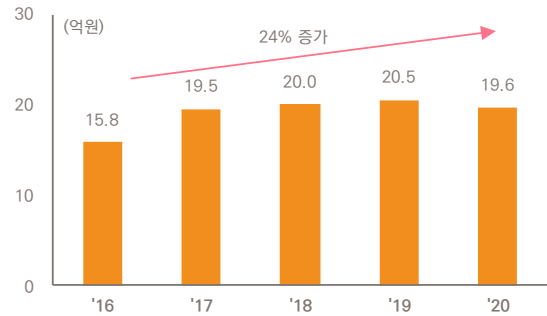
사회적경제기업 취업자 수가 26% 증가하고, 평균매출액도 24% 증가했습니다.

- 사회적경제기업 취업자 수는 '16년 24.9만명에서 '20년 31.4만명으로 26% 증가했습니다.
- 사회적경제기업의 취약계층 취업자 수는 '16년 4.2만명에서 '20년 6만명으로 43% 증가했고, 사회적경제기업 취업자 중 취약계층의 비중도 16.8%에서 19.1%로 증가하였습니다.
- 평균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의 경우 '16년 15.8억원에서 '20년 19.6억원으로 24% 증가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취업자 수 · 취약계층 취업자 수



평균매출액(사회적기업)



성과 ③ 진출분야 다양화

농림어업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보호, 지역공동체 회복 등 생활 속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 취약계층 일자리를 확대하고 소외지역에 작은 영화관을 설립하는 등 취약계층 삶의 질 개선에 기여했습니다.
- 폐교를 활용한 청년 귀농 지원,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마을 식당 운영 등을 통해 지역 사회문제 해결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였습니다.
- 녹조제거 로봇, 페어망 활용 플라스틱 소재 생산 등 친환경 생산 · 소비를 통한 자원순환을 선도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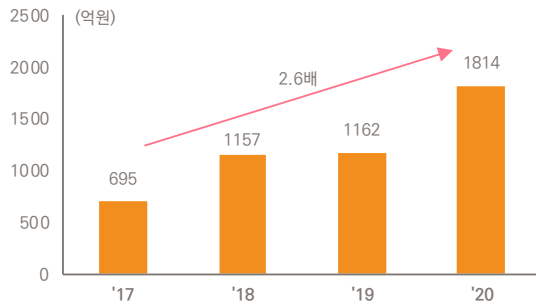
사회적기업 루미르	목포 1897 협동조합	소셜벤처 넷스파
인도네시아 오지를 밝힌 촛불램프 공급업체 → 취약계층 삶의 질 개선	도시재생 등 지역공동체 회복프로젝트 추진 → 지역 공동화 해결	페어망 등 자원재생으로 플라스틱 제로 달성 노력 → 자원순환 · 해양환경 보전

성과 ④ 인식과 공감대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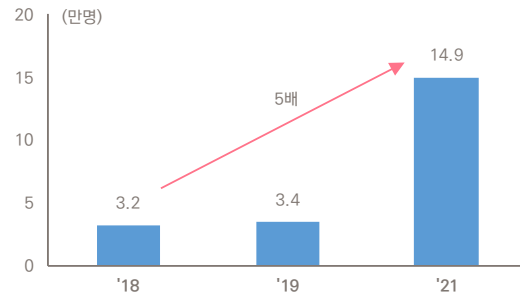
사회적경제계의 상생과 나눔 실천이 확대되고, 국민들의 공감대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이윤의 사회적목적 재투자, 코로나 위기시 '고용조정 제로(Zero)' 선언 등 상생과 나눔을 실천하며 포용적인 경제·사회로의 변화에 앞장섰습니다.
- 박람회, 바이소셜 캠페인 등을 계기로 일반 국민들의 인식·공감대도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회환원(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 박람회 참가인원



향후 PLUS(People, Local, Union, Social Innovation) 실현을 적극 지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 포용성장과 사회혁신을 적극 선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 사회적경제기업 매출의 공공조달 의존성, 시민활동 연계 기반의 부족, ESG 트렌드에 대한 대응가능성, 디지털·그린 전환에서의 어려움 등 여러가지 현장지적과 한계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 사회적경제가 급격한 정책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며 포용성장과 사회혁신을 적극 선도해 나가도록, 향후 사회적경제의 4가지 핵심가치 실현을 강력히 지원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의 4대 핵심가치



향후 PLUS 실현을 적극 지원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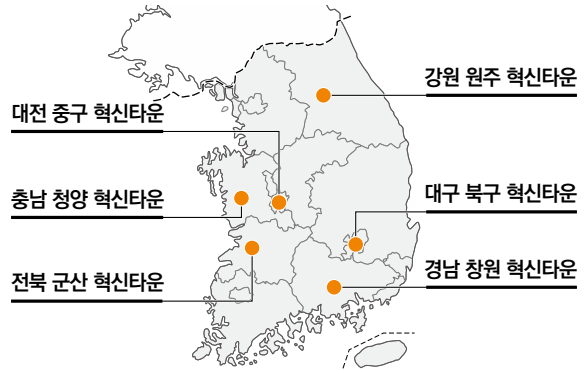
사람(People), 지역(Local) 중심의 포용성장을 실현하겠습니다.

- 우리 경제 · 사회의 고용안전망 ·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보강하고, 사회적경제기업에 의한 돌봄 · 의료 · 주거복지 등 사회서비스 제공 역할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 지역기반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역이 되도록 뒷받침하고, 커뮤니티 비즈니스 등 지역 맞춤형 사업모델 확산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협동조합 어린이집



사회적경제 지역 클러스터 조성



향후 PLUS 실현을 적극 지원 ②

연대(Union) 강화를 통해 사회혁신(Social Innovation) 선도를 지원하겠습니다.

- 소셜프랜차이즈, 플랫폼 노동자 협동조합 등 참여형 상생모델을 적극 개발하고, 민간기업과의 협력, 시민활동과의 연계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소셜벤처 등 혁신가 사회적경제기업을 집중 발굴 · 육성하고, 디지털 전환 · 탄소중립 과정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플랫폼 노동자 협동조합 협의회



소셜벤처 닷(접자시계)



정부는 사회적경제가 포용적 성장과 사회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4가지 핵심가치인 'P, L, U, S'의 실현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